

‘세계 김밥페스티벌’ 전남 김산업 성장 가능성 확인

전남도, 서울서 3일간 개최...내외국인 21만명 찾아 성황 다양한 체험 행사로 전남산 김 마케팅·브랜드 가치 높여 전남 수산물 안전 생산·소비 활성화 방안 토론회도 열려

전남도가 전남 김과 천일염의 고부가 가치화·글로벌 브랜드 제고를 위해 서울에서 3일 간 개최한 '2024 전남 세계 김밥페스티벌'과 '소금박람회'에 내외국인 21만여명이 몰리는 등 김 산업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막해 이날 끝난 김밥페스티벌에선 전남산 김과 김밥, 김부각, 김스낵 등 김 제품에 대한 방문객의 관심이 뜨거웠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국회의원, 김산업연합회, 수협중앙회, 지구별 수협 등 관련 유관기관단체, 광주전남 시도민회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유람연합회와 미얀마·몽골 등 5개 국 주한외국대사, 외국인 서포터즈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개막식에서 "세계적

으로 김 열풍이 불고 있다. 전남도가 특별한 사명감으로 품종 개량과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대 등 김 산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 명품 천일염의 글로벌시장 확대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주제품, 체험존, 마켓존, 천일염존 등 4개 테마존으로 운영됐으며 광장 곳곳에서 30여 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전국에서 소비하는 80% 이상의 김을 생산하는 전남도는 김 역사 전시관, 아트김밥 체험관, 김 뜨기 체험관, 수산물 홍보·판매관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전남산 김에 대한 마케팅과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소금밭 어린이 놀이터, 천일염 웰빙 체험존, 천일염 염장 체험존, 천일염 카페 등 천일염의 건강성도 부각시켰다.



지난 1일부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랜드 광장에서 열린 '2024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소금박람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사장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제공>

특히 전남 농수산물물을 활용한 김밥 10여종을 장성 소재 현대푸드시스템에서 생산해 방문객에게 시식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국내용·수출용 전남산 김밥 제품 다양화를 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김밥페스티벌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산 김의 글로벌 인지도를 더욱 높이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 품종 개발, 친환경 김 생산 면적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김 생산을 늘릴 계획

이다. 또한 2차 가공된 마른 김은 검사소를 통한 품질 관리제로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김 거래소를 통해 전남을 찾는 국내외 바이어에게 마른 김을 공급할 방

침이다. 대규모 마른김 전용 물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2차 조미김 등 가공기업에 물량을 공급하는 등 김 가공기업의 부가가치화를 지원, 세계 김 산업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산 김 관련 제품을 확대하고 천일염의 우수성을 지속해서 알리겠다"며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다양한 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광주매일신문 공동 주관으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이랜드 이룸홀에서 전남 수산물 안전 생산·소비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장과 함선우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영록 부경대 식품과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조태임 한국수산물안전연합회장, 정영인 ㈜씨라이프 사이언스랩 대표이사, 김지현 광주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태규 한화푸드테크 63총괄세프가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국회상황실 가동...국비 확보 총력

국회 동향·정보 공유 단계별 대응...실국장 수시 국회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시도 국회대응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지역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과 국제수입 감소, 여·야간 첨예한 대립에 따라 국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회 단계에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미래 먹거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내년 정부예산안에 광주지역 사업비 233천 244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광주시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액해야 할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에 앞서 '중역 논리'를 보강하고 서울 대외협력본부에 '국회대응상황실'을 설치·가동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10월31

일)부터 의결 때까지 예산 심사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대응상황실'은 국회전략팀이 상주하며 대외협력본부, 실국장들과 원팀이 된다. 시장·부시장은 물론, 실국장들은 국회를 수시 방문해 현안 사업의 절실함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팀광주 의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 상임위·지역구·관심 사업별로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며 설명·설득 작업을 벌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간담

회,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박정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 구축 ▲미래자동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내일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며 "실·국장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국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체육회, 전지훈련 유치 박차

광역단체 최초 관계자 초청 설명회·팸투어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일 까지 이틀간 전남 일원에서 전국 광역 최초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관계자 초청 설명회·팸투어를 개최했다.

'세계로 응징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라는 슬로건에 맞춘 설명회에는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손점식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전국 전지훈련 관계자 등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1일 영암 호텔현대비아라 한에서 시작한 설명회에는 온화한 기후, 풍부한 관광자원, 맛갈스러운 남도음식으로 대표되는 전남지역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여건, 체육시설, 전지훈련 지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했다. 지역별 인프라 현황과 시·군별 지원제도 등 맞춤 설명이 큰 관심을 받았다.

전남도는 전지훈련지로 전남을 10년

연속 방문한 경기 가평중학교 사이클 팀의 하재민 감독과 8년째 찾아준 충남도 육상팀의 이유택 감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비수기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1일에는 동부권(순천), 중부권(화순), 서부권(해남) 3개 지역으로 나눠 팸투어를 진행했다.

동부권은 팔마종합운동장, 팔마실내체육관, 야구장 등을 둘러보고 중부권은 이음대체육관, 공설운동장, 한이음 스포츠센터 등을 방문했다. 서부권은 우של공설운동장, 우של체육관 등을 견학했다.

명장환 행정부지사는 "전남도는 전지훈련 최적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남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실력과 능력을 키워 꿈을 이루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薑시장, 주한캐나다 대사 접견...문화·첨단산업 교류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티마라 모ହି니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문화·첨단산업 분야 등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강 시장은 먼저 올해 30주년을 맞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국가관인 캐나다 파빌리온 전시를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 시장은 "광주비엔날레에 캐나다가 2회 연속 파빌리온으로 참여해 행사

가 더 중요워졌다"며 환대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인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학 교수가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것이 인상적"이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선도 도시 광주는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도시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모ହି니 대사는 "광주와 비엔날레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가 깊어지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청년·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지역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